

# 절승경개 모란봉을 시에 남아

천하에 그 자태 빛나는 너  
민족의 자량으로  
수수천년 평양의 전상으로  
유명한 청류벽을 만들고  
대동강을 넘껏 겨안아  
아, 모란봉



예로부터 평양의 절승으로 이름 높은 모란봉!  
봄이면 온갖 꽃이 봉우리마다 만발하고 여름이면 폭음이 우거지는 모란봉에 단풍계절이 왔다.  
얼마전 모란봉의 단풍경치에 끌리어 이곳에 오른 우리의 눈앞에 이채로운 경관이 펼쳐졌다.  
가없이 넓은 하늘은 푸르는데 높고낮은 산봉우리마다 붉은빛, 황금빛으로 곱게 곱게 단장한 황룡경을 이루는 모란봉.  
모란봉이라면 꽃계절,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풍으로 물든 가을 풍경도 볼 수 있는 장관이었다.  
울긋불긋 아름다운 일색들로 단장한 단풍나무, 은행나무, 수삼나무 등 수십종의 나무들이 어서 오라 부르며 자기들의 자태를 한껏 자랑하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푸르른 소나무들로 모란봉은 더한층 화려하게 채색된 듯싶었다.  
붉게 타는 단풍잎을 만져 보고싶어 키돋움하는 어린 학생들이며 가을날의 모란봉을 화폭에 담으며 붓을 놀리는 미술가들의 모습도 여기저기에서 보인다.  
모란봉을 오르며 흥을 흥하게 해주는 모란봉의 경치에 흠뻑 취해 대동강물이 감돌아흐르는 청류벽의 청류정으로 향하던 우리의 귀전에 누군가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려왔다.

천하제일강산 평양이 안아올린 우리의 모란봉아  
대동강 저 물결도 서해 갈길 잊었는가 서서히 물간개로 피어올라 모란봉초목을 적시더니 어느새 천만미술로 맺혀 무수히 반짝이여라...  
계절은 계절마다 최절경이니 사람들은 춘추추동 너를 찾아라  
찾아서는 경치만을 즐기다가 이 산정 끝없이 아끼고픈 고향 마음도 새까맣게 새록새록 절로 울러라  
나는 몰라라 너의 눈부신 자태를 닮아 우리 마음 이리도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 인민의 정갈한 마음산정에 비껴 내 그리도 아름다웠는지...  
저 멀리 아득한 태고적에 수려하게 솟아올라 그 자태를 빛내이는 모란봉의 절승경개를 노래하는 시의 세계에 심취되어 가까이 가보니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특류벽에 군인 조광원시인이었다.  
비록 두다리와 오른팔이 없는 몸이지만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시인으로 어떻게 성장한 것인지...  
지난 시기 시조 《나의 자

리를 내어달라》, 시조 《신천의 결산은 끝나지 않았다》, 시조 《백두여 그대가 나를 세웠다》를 비롯한 수많은 시작품을 훌륭히 창작하여 조선문학축전상과 6월 4일문학상을 수여받은 그의 시들은 착상이 새롭고 시어가 독특하며 감정이 절절하면서도 섬세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나의 사랑 모란봉아》와 같은 시조들을 창작하여 《모란봉시인》으로 문단에 널리 알려진 것이다.  
우리와 만난 조광원시인은 《정말이지 눈길이 가닿는 곳마다 시어들이 절로 묻어나오는 모란봉입니다. 모란봉에 대한 시를 많이 써왔다고는 하지만 그 눈부신 자태와 수려한 절경을 다 노래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길 보십시오. 한성토록 그림을 그려왔다는 저 미술가도 모란봉의 절경앞에서 학생마냥 맘을 빼고있습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어 그에게서 이런 시가 흘러나왔다.

되는 평양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은 한없이 부풀어올랐다. 동해의 총석정마냥 우뚝우뚝 솟은 장전거리와 송화거리, 회열에 넘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싶은 문수물놀이장이며 풍라인 민유원지 그리고 옥류관의 우아한 활각지붕...  
황홀한 눈앞의 정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느라 문득 고려시기의 유명한 시인 김황원이 부러우며 올라 지었다는 시구절이 떠올랐다.  
긴 성벽 한쪽면에는 늘실 늘실 강물이요 큰 돌만 동쪽머리에 떠여 떠여 산들일세  
여기까지 짓고 자기의 시적 재능으로는 평양과 모란봉의 절경을 다 담을 수가 없어 그만 붓대를 쥐어던지고 통곡하였다는 김황원... 하긴 말과 글, 그림으로써야 어찌 천하 절승 모란봉의 수려함을 다 노래할 수 있겠나.

처와 성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가정의 행복보다 나라를 지켜싸우는 것을 더 귀중히 여긴 애국적인민들의 절실한 것들이었다. 천하제일 평양의 전상으로 유명한 청류벽을 만들고 대동강을 넘껏 겨안아 아, 모란봉  
이 산정 수려함을 지켜 오늘도 서있는가 고구려 옛 성벽  
이끼덮인 네앞에 서니 예나제나 굳건한 성돌들에 나의 사색이 충충 얹혀여라...  
절승을 이룬 기묘한 바위마다 제 모습 뽐내며 무시선을 모을 때 온갖 풍파를 다 맞으며 외적의 화살도 한몸으로 막으며 천년토록 끄떡없는 모란봉의

성돌이여 아, 돌도 다듬어야 성벽을 이루거늘 내 여기 모란봉에 올라 다시금 마음 가다듬노라 이 나라를 지켜 솟은 사회주의성세에 값있게 고여질 내 자리를 찾거져!  
옛 성벽을 떠만드는 성돌 하나하나에도 선조들의 애국심과 무훈담이 뜨겁게 깃들여 있는 모란봉.  
오늘도 옛 모습을 고이 간직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민족적공감과 자부심을 깊이 심어주는 귀중한 역사유적들이 많아 더욱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모란봉이었다.  
두팔 벌려 어서 오라 부르듯싶은 모란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었다. 모란봉의 절승경개 곳곳을 찾아 사람들 저마끔 길을 잡아 오르고 산정에선 노래와 춤판이 한창이었다.  
《얼마나 복받은 인민입니까. 모란봉이 예로부터 명승지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지난날에는 아름다운 그 경치를 즐길 수 없었던 우리 인민이 아니었습니까.》  
격정에 젖은 조광원시인의 말이었다. 그 말을 들으니 생각이 깊어졌다.  
명상의 정기가 아무리 뛰어나다한들 인민의 행복이 무로되지 않는다면 어찌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날 광부사대부들과 잘

사는 사람들만이 올라와 흥을 돋구는 유흥지에 불과했던 모란봉, 오늘은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올라와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인민의 명승지로 전변되었으니 이것을 어찌 세월의 흐름이 가져다준 복이라고 하랴.  
모란봉의 곳곳에 꾸러진 휴식터들과 김일성경기장, 개신문, 모란봉극장, 식당, 유희 오락시설들...  
모란봉은 결코 자연의 아름다움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며 마음세운 절세위인들께서 모란봉을 인민의 명승지로 꾸러주시고 빛내어가시는 것으로 하여 더욱 이름높은 것 아닐까. 하기에 조광원시인은 달아오른 가슴속 흥분을 시구절에 담아 격조높이 터쳐냈다.

너의 환희롭고 기쁨에 찬 모습은 다름아닌 나의 모습같아라 우리 인민의 모습같아라...  
정녕 모란봉의 아름다운 절정은 수억만년 자연이 다듬었다만 인민의 민복은 어떻게 온 것인가  
정중히 우리러니 해빛같은 만수대언덕우에 우리 수령님을 환히 웃고 계시여라  
로동당세월속에 경치는 나날이 아름다워지고 인민의 웃음소리 끝없이 높아가는 모란봉, 발목이 시도록 걷고 또 걷고만 싶은 모란봉을 내리며 조광원시인은 말하였다.  
《다른 나라에도 수도에 오랜 력사와 아름다움을 뽐내는 이름난 명승지와 공원이 있다 하지만 인민사랑의 전설과 뛰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우리의 모란봉에 어찌 비길 수 있겠습니까. 모란봉이야말로 평양의 자랑이고 우리 민족의 긍지입니다. 모란봉은 나이에 걸맞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모란봉이야말로 평양의 자랑이고 우리 민족의 긍지입니다. 모란봉은 나이에 걸맞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모란봉이야말로 평양의 자랑이고 우리 민족의 긍지입니다. 모란봉은 나이에 걸맞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생각했다. 유명무명의 미술가들과 시인들, 수많은 남다른 소울 앞서서 나서서 찾고 또 찾는 모란봉, 오늘은 특류벽에 군인도 이곳에 올라 수려한 절경을 시에 담아 터쳐냈으니 이 또한 여기 모란봉에서만 볼 수 있는 이채로운 풍경이 아닐까.



본사기자 홍범식

## 함께 웃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바가정

### 《이 어머니에게 너를 대신해주는 아들이 많다》



덕과 정!  
말은 길지 않아도 정다운 그 부름에는 경애하는 건정은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머니로 모시고 친혈육의 정을 나누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공화국특유의 참모습이 비껴있다.  
《나에게는 끝없는 아들이 많습니까.》  
우리와 마주앉은 모란봉 구역에 살고있는 강홍화녀성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  
강홍화는 아파트현관앞에서 큰길쪽을 그냥 바라보며 서 있었다. 금방까지도 사진첩을 펼쳐며 웃고 떠들던 청년들이

박림성은 소학교 교원이었던 강홍화의 제자림란회의 아들이다. 류경적과범원에서 일하고 있는 림란회는 영수가 없을 때 그의 건강을 돌봐준 잊지 못할 제자였다. 수습년세월이 흘러간 오늘도 자기의 옛담임교원의 집을 찾아 혈육의 정을 기울이고 있는 림란회는 얼마전부터 그 길에 아들도 함께 세웠다.  
(내 아들 영수야!) 이렇게 입속말로 외우느라니 불속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안겨왔다.  
다른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강홍화는 어린 아들을 무척 고와했다. 그처럼 귀여운 아들이 다섯살 접하던 해에 심한 화상을 입은줄이야. 병원에서는 최종중화상이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다. 즉시 혐의회가 열리고 수술이 진행되었다.  
강홍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팔을 끌어붙이고 자기 아들을 위해 피와 살을 바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되는 것이 많았다.

강홍화의 어린시절은 일본 땅에서 흘러갔다. 그후 부모와 함께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그였지만 그날과 같은 광경은 처음으로 직접 보게 된 것이었다. 문로 시아버지가 귀국을 앞두고 일본에서 총수염수술을 받던 이야기가 돌이켜졌다. 의사라는 사람은 돈만 벌이려고 수술을 채 하지 않은 채 봉합해버렸다. 시아버지는 조국의 품에 안겨 다시 총수염수술을 받았으며 미처 몰랐던 병까지 말끔히 고치게 되었다.  
강홍화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다. 어제는 시아버지가, 오늘은 또 사랑하는 아들이 조국의 품에서 두번다시 생을 받아안은 것이었다.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안되어 병으로 그만두게 된다. 그 때면 한학급동무들이 집에 찾아가 그날 배운 내용을 영수에게 차근차근 알려주곤 했다.  
그후 영수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영수의 소꿉동무들을 비롯한 많은 동

몇해전 남조선에서 17살 난 처녀가 어린 녀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진이 일러나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폭력행위가 조직화되고 흉기사용이 일상화되는 등 8살 난 녀학생을 유인하여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잔인하게 목을 잘라 죽였던 것이다.  
그리고는 흉기를 휘둘러 시체를 마구 토막내어 여러개의 큰 봉투에 담아 아파트우상에 있는 물탱크에 내다 버리었다.  
너무도 끔찍한 살인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는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평소엔 범죄자는 학교에서 수업과 관계없는 해부학책을 보고 살인범죄, 범법적인 행위와 관련한 영화나 소설들에 빠져있었다고 한다.  
결국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살인범죄를 흉내내기 위해 그런 끔찍한 살인민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남조선에서는 이와 같은 청소년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있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되고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폭력행위가 조직화되고 흉기사용이 일상화되는 등 8살 난 녀학생을 유인하여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잔인하게 목을 잘라 죽였던 것이다.  
남조선에서 한해에 발생하는 청소년범죄수는 무려 9만여건이며 각종 범죄와 사기협잡조직에 망라된 불량자들 중 청소년들이 80% 이상에 달하고있다고 한다.  
일방통 수 많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변질락락되고있는 것은 그 바탕엔 청소년들을 범죄의 길로 떠밀고있는 썩어빠진 정치와 사회제도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남조선에서는 청소년들이 컴퓨터로 범죄와 관련한 정보들을 얼마든지 입수할 수 있다고 한다. 지인 폭탄제조법, 총기류제작법, 장난한 고문방법까지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살인과 폭력이 만무하는 컴퓨터오락에서도 교복을 입은 녀학생이 자기 동무를 칼로 찌르거나 살인충거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있다. 또한 영화와 소설들에 성폭행장면이 차고넘치는 데도 아무런 고려없이 청소년들에게 퍼지고있다.  
어려서부터 살인과 략탈, 폭력과 강도행위같은 것에 물든 청소년들이 어떤 길로 나가겠는가 불보듯 명백한 것이다.  
현실은 청소년들을 부패락과 범죄의 길로 떠밀고 남조선사회야말로 전도가 없고 미래가 암담한 암흑사회라는 것을 응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열일곱살 처녀는 왜 살인자가 되었는가



본사기자 전명진